

태양의 후예가 남긴 것들

14일 종영하는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큰 성공은 향후 한국드라마가 현지 공략에서 맞게 될 또 다른 장벽이란 의견도 나온다. '태양의 후예'가 남긴 것들을 정리했다.



송중기 송혜교 주연의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한중 동시방송을 통한 술한 기록을 남기고 14일 막을 내린다. 중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 한류 열풍을 재점화하면서 'K드라마'의 경쟁력을 증명했다.

사진제공 | NEW

중국 강타한 '태후 신드롬'...한국드라마 전제 더 심해질수도

별그대 열풍 이후 콘텐츠 심의 강화
강화되는 검열...작품완성도 우려도

'태양의 후예'는 한국드라마로 처음 중국 동시방송을 시도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11일 오후 4시 현재 현지 동영상사이트 아이치이에 공개된 14회분까지 누적 조회수는 24억회를 넘었다. 기존 사전제작 드라마의 성공사례가 없었고, 중국 동시방송도 처음이어서 우려가 컸지만, '태양의 후예'는 보기 좋게 이를 뒤집었다.

그러나 '태양의 후예'의 성공을 마냥 기쁘게 바라볼 수만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갖가지 제약이 수반되는 중국의 사전검열이 작품 완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국드라마가 만들어낸 열풍을 이상 징후로 받아들이며 더욱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낼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태양의 후예'는 중국 동시방송을 위해 16부에 이르는 전 편에 대해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해외영상물 사전심의를 거쳤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 제도가 2014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의 열풍으로 온라인 콘텐츠까지 심의가 강화됐다는 점이다.

'태양의 후예' 중국 버전은 현지 검열로 인해 일부 장면이 삭제되거나 한국 버전과 다른 내용으로 방영됐다. 중국에서 공개된 1회에는 한국군과 북한군의 격투 장면이 잘려나갔고, 13회에서 북한군의 국적은 치누크라는 가상 국가였다. 14회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성사된 이산가족상봉은 중국 버전에서 한국-치누크 경제협력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그려졌다. 제작사는 현지 요구에 따라 한국과 다르게 편집하거나 영어로 더빙했

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중국 심의에 맞추다 한국드라마의 색깔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중국 당국의 검열이 더욱 엄격해지면 결국 이야기가 엉뚱하게 흐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우려는 한국드라마의 중국 공개에 대한 현지 규제와 관리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대중의 집단행동이나 새로운 사회현상에 민감한 중국 정부는 '송중기 주의보'를 내릴 정도로 '태양의 후예' 열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중국에 타국 문화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규제로서 제한한다"며 "'별에서 온 그대' 이후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심의가 강화된 것처럼 '태양의 후예' 이후에는 더 강력하고 엄격한 규제가 생겨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제2의 태양의 후예'를 노리는 작품이 줄줄이 제작되고 있다. '함부로 애틋하게' '사임당, 더 히스토리' 등이 중국에서 방영되기까지 '태양의 후예'가 겪어야했던 수준 이상의 장벽을 넘어야할지 모를 일이다.

백슬기 기자 bsm@donga.com



■ 여심 훔친 '유시진 명대사'

손발이 '오글거리는' 대사로 송중기의 '입'을 거치면 대한민국 여성들의 마음은 녹아든다. 강모연(송혜교)을 향한 유시진의 한마디 한 마디에 귀 기울이려는 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방송 중 남편들이 해야 할 '행동지침'까지 있을 정도였다. 한 달 만에 동안 유시진의 말로 여성 시청자들은 황홀한 시간을 보냈다.

●"아름다운 것에 홀리면 이렇게 되죠." (3회·3월2일) 해변에 난파된 한 척의 배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유시진. 배가 해변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왔듯이, 자신도 그렇다는 말부터. 저 말에 올라가는 입꼬리를 붙잡을 도라가 없지 말입니다.

●"오전엔 되게 예쁘고, 오후엔 겁나 예쁘죠." (9회·3월23일) 놀란 마음을 달래주려고 농담 반, 진담 반 진심을 표현한다. 남성들도 유시진을 따라하면 안되지만 여성들도 마찬가지다. "변덕이 죽끓듯 하다"는 말을 듣지 않으면 다행이다.

●"다주 히트 허?(Did you hit her)" (12회·3월31일) 사랑하는 여자가 맞았다. 서상사(진구)처럼 "이런 XX"이란 욕이 나오지 않다니... 더군다나 한국인인데 차분히 영어로 묻는다. 내 여자를 본 반가움, 상처를 보는 순간 그 눈빛은 분노로 돌변하며 흔들린다. 수십 번 들어도 시간이 아깝지 않다.

●"이건 잊어요." (12회·3월31일) 숨기고 싶었던 특전사 비밀임무를, 사랑하는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한 손으로 살마시 그녀의 두 눈을 가리며 말한다. 그리고 그의 볼을 타고 떨어지는 한 줄기 눈물. 여성 팬들은 닦아주고 싶지만, TV라는 장벽에 가로막혔다.

●"난 당신이 하는 모든 말들이 중요해." (12회·3월31일) 특전사라는 직업상 모든 말을 털어놓을 수 없지만, 내 여자가 하는 말은 다 중요하다는 유시진. 택배가 오지 않아 안달이 나고, 점심메뉴를 고르지 못해 걱정이라는 이야기까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넓은 남자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한중 여심 저격한 송중기 대형 한류스타 '탄탄대로'

'기승전송중기'라는 유행어처럼 결론은 송중기다.

신드롬을 만들어낸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관통하는 한 단어, 바로 '송중기'라는 애기다.

선남선녀의 달콤한 로맨스, 극한의 상황에서 피어나는 사랑 이야기 등이 드라마 흥행을 이끈 요소이기도 하지만, 송중기의 매력은 열풍을 이끌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그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KBS 드라마'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시들해진 한류를 부활시킨 주역이 됐다.

송중기는 그동안 미소년 이미지로 여성 시청자들의 보호본능을 자극했다면, 이번엔 군 제대 후 더욱 남성다워진 모습으로 돌아와 폭발력을 과시하고 있다.

'송중기 없이'는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중국에서도 '송중기 상사병' '송중기 주의보'까지 내려질 정도로 그의 파급력은 컸다. 군복을 입어도 '섹시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도 송중기의 외모와 매력이 한데 어우러진 덕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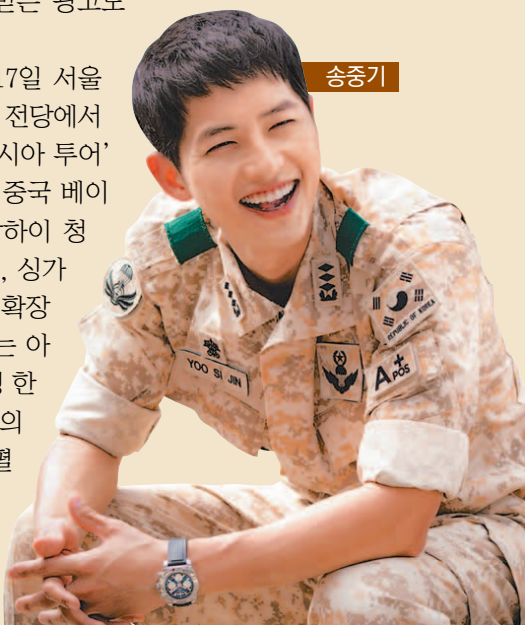
송중기는 극중 특전사 대위 유시진 역을 맡고 강한 카리스마에 리더십까지 갖춘, 모든 여성이 원하는 '남성상'으로 자리 잡았다. 뛰어난 실력에 책임감으로 뚝뚝 문진 성숙한 '남자'의 모습이 국적 불문, 여심을 사로잡은 비결로 꼽힌다. 여기에 가끔씩 예뻐 보이는, 뽀얗고 해맑은 모습이 그의 매력을 배가시켰다.

송중기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드라마 종영 후 아시아 전역에서 팬미팅을 열고 현지 팬들과 만난다. 그가 국내외에서 제안 받은 광고도 무려 100여 편에 이른다.

송중기는 그에 앞서 17일 서울 회기동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2016 송중기 아시아 투어'를 시작으로 태국 방콕, 중국 베이징 우한 광저우 선전 상하이 청두, 홍콩, 대만 타이베이, 싱가포르 등지를 돌며 여객 확장해 나간다. 이제 송중기는 아시아까지 사로잡은 '대형 한류스타'로 우뚝 섰고, 그의 앞길에는 탄탄대로가 펼쳐졌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송중기

'제2의 태후' 꿈꾸는 사전제작 드라마들

'함부로 애틋하게' '보보경심' 등
해외자본·한중 동시방송 닮은꼴

'태양의 후예'가 쌓아올린 명성을 잇는 드라마는 계속된다. 한중 동시방송을 포함해 글로벌 마켓을 겨냥해 방송 전 모든 촬영과 후반작업을 마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드라마는 여러 편이다.

'제2의 태양의 후예'를 노리는 드라마는 7월6일 KBS 2TV 방송이 확정된 김우빈·수지 주연의 '함부로 애틋하게'를 비롯해 이영애의 복귀작 SBS '사임당, 더 히스토리', 촬영이 한창인 이준기·아이유의 '보보경심:려' 등이다. 여기에 기획을 마치고 캐스팅 작업에 한창인 KBS 2TV '화랑:더 비기닝', '엽기적인

그녀'까지 합하면 5~6편에 이른다.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아이돌 스타와 한류 배우를 캐스팅해 100% 사전제작으로 완성하는 이런 드라마들의 공통점은 '한중 동시방송'과 '해외자본의 투입'이다. 최근 한국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발굴과 투자에 적극 나서는 중국 및 글로벌 자본의 움직임이다.

'보보경심:려'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그룹 NBC유니버설이 메인 투자사로 나섰다. 아시아 드라마 가운데 처음 '보보경심:려'를 택한 NBC유니버설은 앞서 '아이리스', '팬텀 사냥' 등 한류 드라마를 연출한 김규태 PD를 발탁하고 그룹 엑소의 백현, 소녀시대의 서현 등 아이돌 스타까지 대거 기용했다. 이를 통해 한국 콘텐츠를 활용한 중국 진출을 시도한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민간인에 총구를?' 태후, 화제만큼 논란도

욕설장면·간접광고 욕에 터

'태양의 후예'는 인기만큼이나 논란도 많았다. 방영초기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욕설논란에 지나친 간접광고(PPL)도 물살을 앓았다. 방영을 앞둔 베트남에선 "한국군 이미지 홍보는 오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초기 드라마에서 논란이 된 것은 실제 군대와 다른 모습이었다. 윤명주(김지원)는 드라마에서 염색을 한 단발머리로 등장했다. 그러나 군 규정상 염색은 할 수 없다. 또한 서울 시내에 위관장교를 데려오기 위해 헬기를 띄우는 장면, 사격 도중 교관이 앞을 가로질러가는 장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유시진(송중기)이 총에 달린 망원경으로 송혜교를 관찰하는 장면도 "민간인에게 총을 겨누는 행위로 군 규율에 어긋났다"는 지적이 있었다.



송중기가 조준경으로 송혜교를 관찰하는 장면. 이는 민간인에게 총을 겨누는 행위로 군 규율에 어긋났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진출처 | KBS화면캡처

3월17일 방영된 8회에서 서대영(진구)의 욕설에 시청자 반응이 엇갈렸다. TV드라마에서는 '수위' 높은 욕설이었지만, 어느 정도 공감 가는 장면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정지도인 권고 조치를 받았다.

7일 14회에서는 PPL이 노골적으로

등장해 드라마 집중에 방해했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게다가 승용차의 '자동주행 키스신'은 매우 위험한 장면으로 폄했다. 드라마에서 서대영은 차선이탈 경보시스템 버튼을 눌렀지만, 이는 차량이 차선을 이탈했을 때만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차선이 없는 교차로나 차선이 흐린 도로에선 위험한 행위는 지적이 많았다.

이외에도 '태양의 후예'가 베트남 현지에서 방영되는 것에 대해서 베트남 내 논란이 있었다. 3월27일 베트남 일간지 '푸오이쩌'의 편광터 기자가 페이스북에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동맹군의 자격으로 왔더라도 민간인 학살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베트남 방송에서 한국군 이미지를 홍보하는 드라마가 방영된다면 오욕"이란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수만 건 이상 공유됐다.

이경후 기자 thiscase@donga.com